

# 코로나 정점 찍었나...정부 이번주 거리두기 완화 여부 결정

### 광주·전남 확산세 둔화...전국 11주만에 감소세 전환 스텔스 오미크론 여전...방역 당국 "안심하긴 이른 상황"

광주·전남지역을 뒀던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완만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급감하면서, 정부는 조만간 내달 3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는 전남보다 1452명이 줄어든 7481명이 신규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0~29세까지 연령대가 3141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은 1322명(17.7%)으로 조사됐다.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구 의료기관에서 9명(누적 14명), 북구 소재 요양시설에서 8명(누적 20명)이 추가 확진됐다. 주간보호센터와 시립제1요양병원, 북구 요양병원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도 이날 모처럼 1만명 미만인 8398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남은 6일 연속 1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순천이 13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 1324명, 여수 1216명, 광양 712명, 무안 540명, 나

주 510명, 해남 339명, 영광 337명 등이었다.

전남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이 2124명으로 전체의 25.3%를 차지했다. 특히 해남에서는 초등학교 60명이 무더기로 확진돼 관내 확진자의 17.7%의 비율을 보였다. 또 영광 한 대학 기숙사와 영광초등학교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각각 15명, 13명이 확진됐다.

정부는 이날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국내에서 11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국 신규 확진자는 18만 7213명으로, 누적 1200만 3054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31만8130명)보다 하루 새 13만 917명 급감해 지난 3일(19만 8799명) 이후 25일 만에 2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보통 주말·휴일을 거치면서 주 초반인 월요일 확진자가 주간 기준으로 가장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감소 폭이 큰 편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1주 만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확진자 정점 2~3주 후에 본격화할 수 있으며,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30% 더 빠른 것으로 알려진 하위 변이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56.3%로 오르는 등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사적모임 최대 8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사

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번 주말인 다음달 3일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조정 논의에 들어가고, 내달 1일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유행 정점을 지난 이후에는 방역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보면서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번주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운영시간과 모임·행사·집회 제한을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번 주중에 (조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에 금주부터 보고를 시작하기 때문에 보고 과정에서 (거리두기 조정안)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 지역 대표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 광주시, 지역현안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총력'

### 이용섭 시장, 안철수·김병준 만나 군공항 이전·달빛고속철 조기 착공 건의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을 만나 지역 현안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28일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추경호 기획조정본부장, 최상목 경제1본부장, 이상양 경제2본부장, 유영환 경제2본부장, 이종섭 외교안보본부장, 위원 등과 면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광주지역 7대 공약과 지역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윤 당선인이 공약

로 제시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형성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호남에 국가의 적극 지원과 과감한 예산 투입 등을 호소했다.

이날 광주시가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한 윤 당선인 7대 공약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광주 조성, 광주형 일자리 시즌2,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달빛고속철도 건설, 임기 내 광주군 공항 이전 등이다.

이 시장은 또 윤 당선인의 공약에서 제외됐지만 안철수 위원장의 공약에 포함됐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 도약, 광주 아시아 아트 콤플렉스 조성, 광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2038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에 대해서도 국정과제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이 시장을 만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광주 시민에게 마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데 적극 돕겠다"고 했고,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역시 "윤 당선인이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광주발전에도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 시장은 "광주 미래 지도를 바꾸고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역 공약의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과 공약사업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련 사업 예산들이 2023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김정은 "우리는 강해져야...강력한 공격수단 더 배치"

### '화성-17형' 개발자들 격려 한미일, 단호한 대응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며 추가적인 공격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 계획을 이행할 의지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북한이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진정한 방위력"에 대해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어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국방건설목표를 점령해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반드시 강해서 그 어떤 위협도 받지 말고 평화를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자"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이 명령하고 발사 전 과정을 참관하는 가운데 4년 4개월 만에 신형 ICBM을 발사했다. 북한은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미는 기존의 '화성-15형'을 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船越建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3국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지난 24일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한 만큼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조치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3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동향이 포착되던 당시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재개에 대비해 한미 군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 강행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가 대응계획과 옵션(선택지)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어떤 방안을 실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여러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한다는 입장이며, 역지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한미 당국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로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군 당국은 미국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미사일 실사격 훈련이나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8902-7900

**금매·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상가건물 대량보유 부동산매매**

<b>담양 월산면 4차선도로변 계획관리 대지</b> 4,200㎡, 4층건물, 2층가든 → 매가 15억원	<b>영암 신북면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전, 임야</b> 11,000㎡ 현재 갈나무과수원 → 매가 5억원
<b>나주시 오량동 농공단지 공장용지</b> 3,500㎡, 냉동창고 660㎡, 창고 330㎡ → 매가 11억원	<b>화순 도곡면 전원주택단지</b> 약 7,400㎡, 전제조성됨, 12필지 → 매가 20억원
<b>군산시 수송동 지하1층 지상6층 대지</b> 840㎡, 메디칼상가, 보10억 월 3200만원 (부가세, 관리비포함) 은행45억원포함 → 매가 68억원 (현금 13억원)	<b>해남읍 사찰, 임야</b> 전 36,000㎡ 건물6동 남갈당1500기 → 매가 10억원
<b>두암동 대지</b> 2,900㎡, 건물7동 있음 → 매가 66억원	<b>동구 지상동 조대후문 먹자골목 상가주택</b> 지하1층 지상3층 → 매가 7억5천만원

계림오거리 한마음부동산 010-2314-8567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텔스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산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너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및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9십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울당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기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이용주 010-3454-2389

**대지매매**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2,816㎡, 852평

**85억**

010-6432-5070

**자본감소공고**  
당사는 2022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다용도 및 임야 자분감소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 232조 및 제430조에 따라 재권자 이익채권을 공고하오니 자 분감 감소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에 기재 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 소  
1. 자본감소의 사유: 자기주식 소각 (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2. 자본감소의 방법: 임야부동산소각  
3. 자본감소 총액: 금4,571,320,000원  
4. 자본감소 후 자본금 총액: 금3,777,320,000원  
5. 자본감소 수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79,400주  
6. 자본감소 후 발행주식수: 보통주식 3,777,320주  
7. 주의 금액: 금10,000원  
채권자의의제출기간: 2022. 3. 29부터 2022. 4. 29까지  
이의제출장소: 나주시 다도면 다남로 190 (주)미래 법무지원팀  
2022년 3월 29일  
**주식회사 미래**  
나주시 다도면 다남로 190  
대표이사 구희택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나**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행구독 (062)220-0550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신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국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